

## 협 회 소 식

### ❖ 호남지회 (광주전남도지회) 통합총회 개최

당협회 호남지회가 지난 4월17일 전남 영암 신북부폐에서 통합총회를 갖고 이 지역 회원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활동에 들어갔다. 당협회 안희복회장,장규호 고문등 이지역 회원 8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는 지회장에 부성 오리유통대표 이덕행씨를 지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사에 박평순,강민수,강도원,이병선, 김명우,나종열등 6명을 선출했다. 또 총무에 주찬형, 부총무에 오점근,김연기등 각2명을 선출하는 한편 감사에 박준채,김영형씨를 선출했다. 이밖에 지회조직내에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부화분과위원에 양성현,조상현, 사육분과위원에 황문주,박진근, 유통분과위원에 최선,김용석씨등 6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호남지회는 총회원 88명에 지회내에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지회장에 선출된 이덕행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지역 회원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혼신을 다하겠다” 전제하고 회원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호남지회가 광주전남도지회로 새롭게 출범하므로써 그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호남지회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며 국내 오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당협회는 지난 4월29일 협회사무실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협회 회보지발행, 각분과위원회 활동강화를 추진키로 의결하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업계의 각종정보와 협회활동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협회지를 정기간행물 형태가 아닌 우편물로 발행하여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 현재 각분과별로 부회장제도를 두고 있는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분과별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각 지회별로 일정비율로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키로 하는 한편 이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당면한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날운영키로한 위원회는 사육분과,부화분과,유통분과,토종오리분과등 4개이며 각 분과별 위원은 사무국이 각 지회와 협의하여 선임키로 했다.

### ❖ 호남지회 (광주전남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

광주전남도지회는 지난 5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현재의 새끼오리 가격을 1천 원선에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농가의 위탁수수료를 출하율 95%기준 현재 800원에서 1천원으로 2백원 인상키로 했다. 또한 정관내용중 임원의 구성, 자격, 임원선출 임원의 임기,이사회 의결사항등 일부내용을 수정 통과 시켰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새끼오리 가격 인상안이 부결되고 사육농가의 위탁수수료가 2백원 인된 것은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이 먼저 확충된 이후에 새끼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화장,유통,사육농가의 합치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오리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미르네농장 사육농가 간담회 및 농장이전 기념식 개최

미르네농장(대표 김현숙)은 지난 5월 15일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8-1번지 소재 농장에서 사육농가 이지역 기관장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장이전 기념행사 및 사육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미르네농장 한상룡씨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 오리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좋은 새끼오리가 농가에 공급되어 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품질좋은 오리고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르네농장은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농가와 긴밀한 협조하에 품질좋은 새끼오리 생산공급에 더욱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오리업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좋은 오리고기 생산이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육량생산이 많고 지방의 비율은 적으면서 오리의 상재성 질병인 오리패혈증,간염 등에 안전한 새로운 품종 물덕종을 도입하여 이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르네농장은 사육농가등 거래처 10여개 업체로부터 오리업 발전을 위해 협찬한 협찬금 2백20만원을 당협회에 전달했다.

## 안 내

## ❖ 전화번호 변경

당협회 광주전남도지회가 지난 5월 17일부로 전화(0693)73-5325, FAX(0693) 74-5326으로 변경됐다.